



CONTENTS

01 이슈공감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윤종주

02 연구소 소식

03 주요 수행연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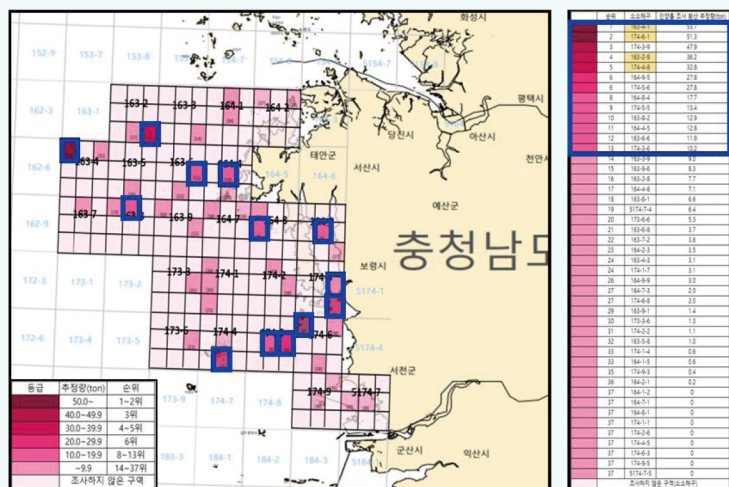
01 이슈공감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완성 및 활용방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윤종주** (jjyoon@cni.re.kr)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달성 지원을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지도’를 3년에 걸친 연구용역을 통해 완성하였다. 1차년도 도서지역 쓰레기 분포지도, 2차년도 해안가 쓰레기 분포지도에 이어 3차년도 침적 쓰레기 분포지도를 작성하면서 도내 해역의 해양쓰레기 분포현황을 종합한 공간지도가 제작되었다. 그동안 공간해상도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국가 해양쓰레기 종합조사와 비교할 때, 이번에 제작된 해양쓰레기 분포지도는 전 해역에 걸친 촘촘한 현장조사를 계절별로 수행하여 직접적인 수거지원을 위한 공간정보를 제시하는데 그 의미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분포량, 현존량 등의 수치적 접근보다는, 수거 활동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양쓰레기 분포량을 10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한 것이 차별성이 있으며, 높은 등급의 분포량이 나타난 곳은 발생원인 조사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최초로 도입된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작성사례로, 국내 타 지자체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3차년도 조사성가로 제시된 침적쓰레기 분포지도는 침적된 해양쓰레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치를 세밀화하여, 정부에 관리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양 침적 폐기물 정화사업’ 국비확보 기반 자료로 활용되어 충남 해역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분포지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5년도 국가 침적폐기물 정화사업 대상지 중 15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며, 국비확보 효과는 약 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충남연구원과 충남도의 연구성과는 1회성이 아니라 향후 해양수산부를 통한 국가사업화 진행으로 전국 연안의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작성으로 정책이 확장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업인을 중심으로 한 폐어구 자율관리 시범사업 등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침적 해양폐기물 분포지도 작성사례

02 연구소 소식

01 해양수산부-환경부 정책협의회 현장방문

지난 1월 17일 서천군 흥원항 및 금강하구역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양 부처간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천군은 금강 최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여름철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매년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인해 초목류와 생활쓰레기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해양환경 정책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주기적 관리 정책 강화와 육상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해양쓰레기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02 충청남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세미나

지난 2월 27일, 충청남도 건설화관에서 충청남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충남연구원 주관으로 (주)캠토피아, 대림대학교,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지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자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안, △화학법 개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위해성평가 적용 제안,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김중범 책임연구원은 '충청남도 화학물질 배출현황 및 안전관리 계획'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이 많은 지역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2차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해 충청남도의 화학물질의 관리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3 해양쓰레기 예방 교육 강화, 해양생태계 보호에 총력

해양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에서는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였고, 지정된 센터들을 통해 충남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어구 유실과 유령어업은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2017년부터 도내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아 해양쓰레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 수업 과정과 연계한 해양환경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며, 충남교육청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4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점검교육 실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출원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의 '25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소재 화력발전소 주변 민간대기측정망 38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2021년 25% 미만이던 유효가동률을 관리기준인 75%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기측정망 유지보수를 매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충남연구원 참여 연구원의 정기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위탁관리 추진에 앞서 '25년 3월 과제참여 연구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로 측정망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신뢰도 향상 및 활용성 강화를 통해 주변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03 주요 수행연구 소개

● 주요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수탁과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2025년 충청남도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4년도 이행점검
도정책과제	2024년 충청남도 연안환경측정망 중장기 모니터링 연구
	제2차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제2차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정책 지원과제	2025년 충청남도 기후변화 교육지원
	충청남도 2024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2025년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충청남도 적응기술지원 현황과 과제
현안과제	충청남도 대기환경 변화 추이 분석
전략과제	시군별 O ₃ 농도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제시

● 연구소개 /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4년도 이행 점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와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Adaption)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충청남도는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22~2026)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충청남도의 정책 뒷받침을 위해 천안, 아산, 논산, 금산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적응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를 대상으로 추진사항을 연단위로 점검하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을 위한 성과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제 추진을 통해 세부 시행계획(5개년)의 연도별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환류 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충남도, 기록적 폭염 "온열질환자 속출 첫 사망자 발생"

▲ 박민규 기자 | © 일백 2024.08.10 17:51 | 100 댓글 0

태안 거주 80대 1명...온열질환자 9일까지 115명 집계



충남도청

최신뉴스

· "나 다시 감방일!"
· 청양군, '세계 물'

'생산량 반쪽' 천안배 농가들 "농작물재해보험 실효성 의문"

등록 2024.10.24 08:00:00 수정 2024.10.24 10:26:23

일소(햇볕대임) 원인 낙과 피해, 천안 배농가 67% 신고
봉지배워 키우는 배, 수확기 피해vs조여를 조사 '과려'
높은 자기부담비를 초과시 보상...사실상 보상 미박



충청남도 기후위기 관련 피해사례